



대테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

-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,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입니다.
-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,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.
-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'어떤 경우건 정치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, 한점 의혹이 있어선 안된다'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.
- 이에 따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한편, 이 대표의 치료와 신변안전을 위해 야당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대테러종합상황실	책임자	상황실장 고범석 (02-2100-2068)
		담당자	소방경 김비룡 (02-2100-2070)